

인도의 식민도시에 관한 인도 교과서 서술관점 연구

-뉴델리,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India's Textbooks on Colonial Cities in India

-Focused on New Delhi, Madras, Calcutta and Bombay-

박소영,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So-Young Park(parksy@aks.ac.kr), Jae-Yun Jeong(jyy@aks.ac.kr)

요약

이 글은 인도의 대표적인 식민도시인 뉴델리,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현재의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가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인의 관점에서 본 식민도시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 교과서에서 식민도시들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영국인과 인도인 간의 분리, 도시 계획, 식민지배 기간 동안 축조된 건축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서술관점은 '박탈, 배척, 차별, 저항, 도전'과 '기회의 부여, 수용, 흡수'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식민도시를 둘러싼 서술관점은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데, 영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식민도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징, 그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들어가는 사회, 문화적 특징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다층적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지배자로 겪었던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 중심어 : | 식민도시 | 뉴델리 | 마드라스 | 캘커타 | 봄베이 | 인도 역사 교과서 |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India's major colonial cities—Madras, Calcutta, Bombay (today, Chennai, Kolkata, Mumbai) and New Delhi— are described in India's history textbooks and analyz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s. It is explained the major colonial cities as the process of making the cities and their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the separation between British and Indian, urban planning, colonial architectures built by British colonial power in Indian history textbooks. The viewpoint of its descriptions is featured by the coexistence of 'deprivation, exclusion, discrimination, resistance, challenge' and 'grant of opportunity, acceptance, absorption'. That is, this characteristic maintains a mutual confrontational and inseparable relation. And in a multi-layer, it enables to consider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 colonial city reflecting the British ruling ideology and the society within which the rulers and proprietors are forming without simplify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It is clear that there was a resistance against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had been suffered by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as well.

■ keyword : | Colonial City | New Delhi | Madras | Calcutta | Bombay | India's History Textbooks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인도의 도시들은 다른 모든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그곳에서 전개된 역사와 거주민들에 의해 창조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흔적이 반영되어 있다. 인도는 고대문명을 꽃피웠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적 특징이 어우러져 그들만의 독특한 도시문화를 형성해나갔다. 특히, 무굴제국 시대에는 국제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도시들이 흥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인도 도시의 정체성은 상실되었고 이른바 새로운 형태들의 식민도시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중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현재의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그리고 뉴델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식민도시이다[1].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는 식민 모국인 영국의 경제를 향한 출입항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식민지 경제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행정·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영국 식민제국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델리가 개발되었다[2-5].

해안가에 위치한 시골마을이었던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경제활동 거점지가 되면서 중요한 무역센터로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이들 도시들은 공간구조를 비롯하여 그 안에서 중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본의 이동, 새로운 계층의 형성, 도시 거주자 간의 관계, 식민정부의 도시 운영 정책, 지배세력과 현지인들의 정체성 표현방법에 의해 나름의 독자적 특징을 형성해 나간다. 반면, 델리는 무굴제국 시대의 행정과 통치의 중심지로, 특히 샤자한 황제의 통치기에 건설된 성곽 도시인 샤자하나바드(Shahjahanabad)는 무굴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정치·종교·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델리는 무굴제국과 함께 쇠락하였으며, 새로운 수도로 뉴델리가 건설되었다.

인도의 식민도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식민 지배국이 중심이 되거나 유럽의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식민지배를 겪었던 국가와 현지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이 글은 인도의 주요 식민도시들에 대해 인도 역사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수사방식에 주목하여, 인도인들의 관점에서 본 식민도시에 대한 평가와 의미부여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식민도시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 Home(1997) 『Of Planting and Planning』과 King(이우용 옮김)(1999)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 Economy [도시문화와 세계체제]』를 들 수 있다. Home(1997)은 영국의 식민지 도시 계획 역사를 망라하였는데, 영국 도시계획 모델의 형성과 적용 그리고 전문가 집단, 위생 정책, 집단주택문제, 격리와 위생문제, 근대적 도시계획을 비롯한 제도화와 정부의 기능 및 탈식민지기의 도시 재건을 소개하였다[6]. King(1999)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식민지 모국의 중심부와 식민지 주변부 간의 문화적, 공간적 연계를 밝히고 세계도시체제의 역사적 토대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도시와 지역을 이해하고자 하였다[5]. 이춘호(2010)는 샤자하나바드와 뉴델리 모두 도시 거주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치자의 속성이 반영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졌으며, 뉴델리의 경우 식민제국인 영국의 영광과 통치 이데올로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고안되었다고 밝혔다[7]. 신민하(2016, 2017)는 영국 식민정부가 델리로의 수도 이전을 결정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델리로의 새로운 수도 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을 통하여 영국 식민지배정책의 정치적 의도를 연구하였다[1][8].

이처럼 식민도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식민지배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현지민들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홀했으며, 결과적으로 식민도시 공간의 사회적·문화적 혹은 상징적 이용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9-11]. Yeoh(1996) 또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식민도시 싱가포르 내부에서 식민지배를 경험한 현지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도시를 식민지배국의 강력한 이념적 의도로 건설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저항과 갈등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1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피지

배자의 견해를 살피는 취지에서 인도의 식민도시에 대한 인도인의 관점과 그 특징을 탐색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인도는 연방제 국가로 29개의 주(state)와 7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ies)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사회적 배경이 매우 상이하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 교육의 특징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준을 정하고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도 연방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연구훈련원(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이하 NCERT)이다. 각 주는 NCERT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표본으로 삼아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의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교과서는 인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적 영역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식민지 지배를 겪으며 영국에 의한 역사왜곡을 경험했다. 영국은 인도식민통치 기간 동안 역사교육을 통하여, 영국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거나 인도인들에게 인도가 근대화되지 못한 이유는 인도의 전통적인 제도들의 한계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었다. 독립 후, 인도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영국의 식민지 교육 하에서 이루어진 왜곡을 바로 잡고 인도의 국가 재건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였다[12]. 그러나 한 때 일부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인도 역사를 미화하거나 힌두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힌두교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집필되기도 하였다[13]. 이후 2005년 국가 수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of School Education: NCFSE)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출판되면서 교과서 내용은 대폭 개선되었다. 개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특정 종교를 우월하게 서술하거나 인도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종교·정치 등 논란

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는 등 교과서 내용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4].

이처럼 NCERT에서 제작한 인도 교과서의 내용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주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의 경험을 교과서 서술을 통하여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인도의 역사 교육과정에서 식민지기에 관한 주제와 이를 다루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영국의 식민 정책을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 식민도시도 중요한 역사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8학년과 12학년 역사 교육과정에서 각각 뉴델리와 3대 항구도시인 마드라스·캘커타·봄베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를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 역사교과서의 구성적 특징은 주제(Theme) 중심으로 챕터(Chapter)를 구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시각자료와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감수성과 탐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심층적 이해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구성적 특징을 감안하여, 서술내용뿐만 아니라 함께 제시되어 있는 시각자료, 학습활동도 함께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뉴델리 등 식민도시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식민도시 이전의 전통적 모습에서부터 변화과정에 관해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시와 시골 간의 상생 관계, 무굴제국 수도 델리의 영광에 대한 묘사, 식민도시 건설과정, 도시인의 삶, 사회와 풍속의 변화, 식민도시화 과정에서의 저항 등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내용도 매우 폭넓다. 이 글에서는 이들 내용들을 ‘전통적 도시의 쇠락과 신도시의 탄생’, ‘식민도시로서의 변화모습’, ‘식민도시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인의 저항’으로 범주화하여 주요 분석내용으로 설정하고, 교과서에 재현된 식민도시에 관한 인도인의 관점과 견해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도교과서에 서술된 식민도시

1. 전통적 도시의 쇠락과 신도시의 탄생: 무굴제국의 쇠퇴와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 형성

8학년 역사교과서 『Our Pasts III』에는 ‘6장. 식민주의와 도시: 제국의 수도 이야기(Colonialism and the City: The Story of an Imperial Capital)’라는 제목으로 델리가 식민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소개된다. 서술 전개 방식은 세포이 항쟁이 일어난 1857년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델리의 모습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슬람 왕국의 수도였던 델리, 그 중 무굴왕조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샤자하나바드를 통해 인도 전통적 수도의 특징을 서술한다.

궁전 복합건물을 포함하는 붉은 요새(Lal Qila, Red Fort), 도시 중심의 큰 거리인 찬드니 초크(Chandni Chowk), 전통시장 파이즈 바자르(Faiz Bazaar), 인도에서 가장 웅대한 모스크 자마 마사지드(Jama Masjid) 등을 샤자하나바드의 랜드마크로 언급한다. 그리고 수피(Sufi)문화의 중심지로서 건설되었던 다양한 종교 활동 시설(기도를 위한 광장, 수피 음악을 감상하고 영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공간 등)이 곳곳에 존재했으며, 열린 광장, 구불구불한 도로, 조용한 골목길, 도시를 관통하는 수로 등을 델리다움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델리다움’은 이후의 식민도시 건설을 통해 혼란과 무질서,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평가 절하되기도 한다.



그림 1. 샤자하나바드의 이미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델리에서 꽃피웠던, 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델리 르네상스 시대(Period of the Delhi Renaissance)’이다.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와 같은 식민도시에서는 인도인과 영국인의 생활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었지만, 델리에서는 19세기 전반기가

지 영국인들과 인도 부유층의 거주지역이 동일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은 우르드어를 배우고 페르시아 문화와 시를 즐기며 현지 축제에도 참여했으며, 델리 대학의 설립과 함께 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학문이 발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1857년은 델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해이다. 세포이 항쟁에 대한 영국군의 무력 진압과 도시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당시의 참상을 묘사한 유명 시인 갈리브(Galib)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성난 사자(영국군)가 도시에 들어서자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죽이고 ... 집들을 불태웠다. 남녀의 무리, 평민과 귀족들은 3개의 성문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작은 마을과 도시 밖에 있는 무덤에서 피난처를 구했다.”[15]

교과서에서는 영국은 델리가 무굴의 과거를 잇기를 원했고 모스크나 공공 모임의 시설들을 파괴하고 요새를 부수어 철도를 건설하는 등 복수와 약탈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인도의 기존 도시들을 파괴하고 영국제국을 상징하는 식민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이 실행했던 다양한 실험적 도시계획 중 하나의 사례이기도 했다[16].



그림 2. 파괴 이전의 자마 마사지드 주변 모습



그림 3. 파괴 이후의 자마 마사지드 주변 모습

한편, 교과서에서는 [그림 2]와 [그림 3]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사진자료 설명과 사진 비교를 통한 학습활동을 연계시킴으로써 파괴되는 델리의 모습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2: 자마 마스지드를 둘러싼 건물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건물들은 1857년 반란 이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림3: 주변 건물이 철거된 후 자마 마스지드의 풍경

-학습활동: 위의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오. 사진에 묘사된 변화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에 관해 한 단락 정도 서술해 보시오.”[15]

이와 같은 사진과 학습활동의 제시를 통해 무굴제국의 영광을 지우고 영국의 영광을 상징화하기 위해 전통 도시의 파괴를 시도했던 영국에 대해 인도인들이 느꼈을 박탈과 상실감이 전달되고 있다.

반면,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는 식민지 동안 영국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경제자본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들 도시에 관한 내용은 12학년 역사교과서 『Themes in Indian History』에 ‘주제12. 식민도시들: 도시화, 계획과 건축(Colonial Cities: Urbanisa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18세기를 기점으로 도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상업적 역할이 새롭게 조정되었고, 점차 구 도시가 쇠퇴하고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역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새롭게 지역 권력이 성장하게 되었고,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거나 창조되면서 기존 도시를 이탈해서 유입된 이주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말 ‘아시아의 육지 기반 제국은 강력한 해양 기반 유럽 제국으로 대체’되면서 항구도시들이 새로운 경제 자본 무대로 급부상하게 되고, 특히 마드라스 등의 3대 항구도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행정과 정치권력의 중심지로 변모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즉, 도시의 형태가 구축되기 이전의 항구도시에서는 그들의 공간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

를 겪게 되고, 변화의 물결이 쇄도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식민도시로서의 변화모습

2.1 도시공간의 변화

영국은 1911년, 조지 5세 즉위식에서 델리로의 수도 이전 계획을 선포했다. 캘커타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으나 세포이 항쟁을 통해 영국은 무굴 황제가 인도인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항쟁의 본거지인 델리에서 대영제국의 정치적 위상을 확인시키고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새로운 수도 뉴델리는 샤자하나바드의 남쪽에 건설되었으며 “샤나하나바드와 대조적인 도시”를 만들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뉴델리에게 기대하는 도시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봄비는 마을도 없었고 좁은 셋길의 미로도 없었다. 뉴델리에는 거대한 복합건축물 가운데 거대한 대저택이 들어서 있고 넓고 곧게 뻗은 거리가 있어야 했다. 영국인 건축가들은 혼란스러운 올드델리와 달리 뉴델리가 법과 질서를 재현하기를 원했다. 새로운 도시는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이어야 했다.”[15]

뉴델리에 건설된 총독 관저(Viceregal Palace)(현재 인도 대통령 관저인 Rashtrapati abahavan)와 정부청사는 식민 수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교과서에서는 건축양식에 있어서 돔이나 장식과 같은 부분적 요소는 인도의 불교와 이슬람 양식을 빌려왔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의 고전적인 그리스 건축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물들은 영국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총독 관저가 샤자하나바드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었던 ‘모스크 자마 마스지드(Jama Masjid)’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까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 4]를 제시하고 ‘Raisina 언덕에 올라가 대통령 관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 관저를 바라봄으로써 경외감이 생겨나고 영

국의 위력이 강조될 것이라는 베이커(필자주: 뉴델리 도시 계획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15]. 이와 같은 서술과 문제제기를 통해, 인도적 요소를 융합시킨 건축양식을 채택함으로써 인도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영국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앞의 절에서 살펴본 ‘델리의 영광과 전통의 파괴’의 연장선에서 도시공간의 정치적 재구축을 통해 올드델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등되어 가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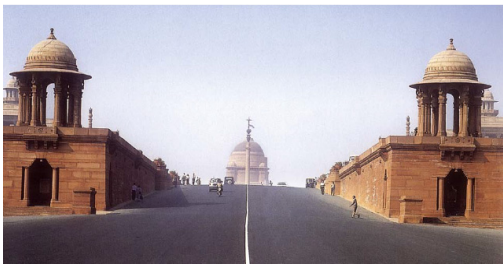


그림 4. Rasina 언덕 꼭대기에 있는 총독 관저

한편, 영국인과 인도인의 거주지 분리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영국인들도 부유층 인도인과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였으나 샤자하나바드의 북쪽에 새롭게 조성된 시빌 라인(Civil Line) 구역을 중심으로 영국인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반면, 올드델리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뉴델리와 비교하여 물 공급, 배수와 같은 도시설비의 관리와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생활여건이 열악해져 갔다. 이에 따라 인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남부 다르야간지(Daryaganj South)와 같은 거주지역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은 철저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뉴델리 중심의 식민도시를 건설해갔고, 그러는 사이에 올드델리는 전통적 수도로서의 명예와 영광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반면,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경제자본 도시로 급부상하고 식민지 행정과 정치권력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공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문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세 도시가 성장하게 된 출발점이 영국 동인

도 회사의 무역 거점이었던 만큼, 영국인들의 정착지 보호가 중요했고 요새건설을 통해 명확하게 거주지 분리 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화이트 타운’과 ‘블랙 타운’으로 인종적 배타 지역을 만들었고 영국인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게 되자 이러한 구별은 더욱 명확해져갔다. 교과서에는 블랙 타운에 축조되었던 사원 ‘블랙 파고다’가 영국인에 의해 민족의 색깔로 형상화되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5]와 함께 ‘칠트포르 시장은 캘커타의 블랙 타운과 화이트 타운 경계에 있다. 부유한 집주인의 벽돌 건물과 가난한 사람들의 초가집 등 다양한 형태의 집에 주목해보자. 그림에 있는 사원은 영국인에 의해 <블랙 파고다>라고 명명되었다. 이 사원은 블랙 타운에 사는 고빈다 람 미터(Govinda Ram Mitter)라는 사람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민족의 언어로 형상화되어 이름조차도 검게 칠해졌다’와 같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 두 민족 간의 거주지 구별이 블랙·화이트 타운과 같이 단지 공간의 이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인의 인도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당연시 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이나 바다 근처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부두와 가트(ghat)가 건설되고, 해안을 따라 창고, 선적과 운송 관련 보험기관, 은행이 세워졌다. 화이트 타운인 요새 주변에는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독점적 클럽, 경마장,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들도 생겨났다. 부유층 인도인은 흑인 타운에 인도 전통스타일의 안마당이 있는 저택을 지었지만, 노동자들은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거주했다.



그림 5. 칠트포르 시장(Chiltapore Bazaar)

근대적 위생관념은 도시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인들에게 블랙타운은 ‘혼돈과 무질서’뿐만 아니라 ‘오물과 질병’의 상징이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블랙타운에서 화이트타운으로 퍼질 것을 두려워한 영국인들은 도시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1860년대부터 지하 배관을 통한 급수, 하수도 및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위생적인 경계가 인도 도시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처럼 영국은 인종적 우월함을 근거로 문명화라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인도에 위생 개혁을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위생관념과 공간의 분리는 ‘위험한 피지배자의 통제’와 그들로부터 지배자의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17][18].

한편,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의 항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보다 안전하고 고립된 공간의 형성을 통해 견고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캘커타에서는 진군하는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요새로부터 화재선(Fire line)을 조성하여 요새와 인근 인도인 거주 지역 사이에 상당히 넓은 빈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요새 근처의 기존 건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강제이주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캘커타의 모델은 다른 많은 도시에서 재현되기도 했다.

2.2 인도인들에게 초래된 변화들과 잔존하는 식민지 유산

식민도시의 형성은 인도인들의 삶과 인도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초래했다.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직업군과 계층이 생겨났다. 또한, 문화의 향유방식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화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도·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교과서에도 이러한 변화들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델리의 경우,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구도시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가는 과정이 언급된다. 운

하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급수와 배수의 기존 시스템이 파괴되고, 시설 투자에 대한 뉴델리와 차별적인 예산 배정과 관리 소홀로 인해 올드델리의 거주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가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1931년 실시된 인구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1 에이커 당 인구밀도가 뉴델리는 3명인데 반해, 올드델리는 90명으로 끔찍하게 붐비는 상황이었으며, 몇몇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성곽도시(필자주: 올드델리를 의미함)는 매우 높은 인구밀도로 열악했지만, 도시는 확장되지 못했다. 1888년, 라호르 게이트 개선 계획(Lahore Gate Improvement Scheme)이 로버트 클라크(Robert Clarke)에 의해 계획되었다. 구 시가지에서 새로운 형태로 조성되는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재개발에 따라 도로는 격자 패턴에 따라 만들어졌고 폭, 크기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토지는 인근지역 건설을 위해 규칙적으로 분할되었다. 이 개발은 불완전한 채로 끝났고 구 도시의 혼잡함을 막지 못했다.”[16]

로버트 클라크(Robert Clarke)의 라호르 게이트 개선 계획(Lahore Gate Improvement Scheme)과 같은 식민지 도시계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영국의 도시계획가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Home(2013)의 저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인도의 여러 도시들에게 보여지는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에 의한 ‘보존적 수술’ 형태의 다양한 도시계획은 일관적이지 않고 체계가 없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적합한 도시계획, 자원, 정책 방향, 인재 등의 문제를 둘러싼 문제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위상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16].



그림 6. 올드델리의 거리

교과서에서는 개발의 실패를 지적함과 동시에 위의 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술이 마무리되고 있다.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좁은 골목길에 가게가 즐비하고 행인들로 가득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혼잡함은 올드델리를 상징하는 요소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에 의해 편잡인들을 중심으로 델리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이후 그들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델리의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 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델리로 이주해 온 이들은 집주인, 변호사, 교사, 상인 및 작은 가게의 주인이었다. 분단이 그들의 삶과 직업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행상인, 납품업자, 목수 및 대장장이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대체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하였다. 편잡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델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우르두어가 바탕이 되었던 도시 문화는 음식, 의복 및 예술 분야에서 편잡종의 새로운 취향과 감각으로 뒤덮였다.”[15]

편잡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언어나 음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였는데 이들의 대거 이주는 델리 토착문화가 편잡화되는 결과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델리 지역사회는 난민들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호감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19].

한편, 마드라스 등의 식민도시들은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며, 델리와는 달리 새롭게 도시 공간이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업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마을들은 무역 중심지를 둘러싸고 성장하였으며, 국제무역, 중상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사회의 본질을 정의’하게 되었다.

이들 도시에서 일어난 변화는 교과서 서술을 통해 매우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영국인 정착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현지인과의 정착지 분리, 이른바 화이트 타운과 블랙 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고 그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공중 보건’이 등장하는데, 전염병이 영국인 거주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인도인 거주지에 대한 건축 활동이 엄격히 규제되었다. 일례로 인도인 거주 지역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오두막을 없애고 거주자들이 교외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과정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20].

상업·무역 활동의 증가와 발달은 직업 수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중산층이 증가하였고, 토착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인들은 영국인과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특권적 위치를 통해 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들 계층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정부 정책과 기존 관행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개진하는 등 공개적 토론 문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도 언급한다. 그러나 인식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과 비난이 있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시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중산층 여성들은 저널, 자서전 그리고 도서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바꾸려는 이들의 시도에 분개

했다. (중략) 여성 교육을 지지했던 개혁가들조차도 여성을 우선적으로 어머니와 아내로 보았으며, 그들은 가족의 밀폐된 공간에 머물기를 원했다.”[20]

새로운 도시의 삶에서는 빈부차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일터와 가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 공원·극장·영화관과 같은 새로운 공공장소가 출현하게 된 점도 변화의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다. 노동자와 빈민층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교과서에서는 이들의 당시 생활모습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도시의 엘리트와 중산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했고, 병사가 되거나 그 밖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시골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만의 활기찬 서민문화를 형성해갔다는 점, 종종 유럽인과 인도의 기득권층을 조롱하는 등의 풍자도 활발했다고 설명한다[20].

한편, 교과서에서는 이들 도시에 남겨진 식민지 흔적의 대표적인 것이 당시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통치자의 문화와 자신감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통치자들은 제국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주로 유럽풍으로 축조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인도의 자산가들도 유럽풍 건축물이 근대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스타일과 유럽스타일이 융합된 건축양식이 발전하게 되며,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융합함으로써 영국인들은 그들이 인도의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20].

3. 식민도시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인의 저항

이처럼 식민도시 형성에 의해 도시의 공간, 사회 구조, 전통적 가치관과 정체성, 문화의 향유방식이 변화되어 갔다. 인도인들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터전의 공간적·물리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삶의 영유 방식은 물론 다양한 층위의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위 변화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누렸었던 권리도 점

차 빼앗겼다. 이러한 변화와 상실에 대한 갈등과 저항이 야기되었고,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들은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캘커타의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 보건’이라는 개념은 마을의 정화와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전염병 확산 요인을 열악하고 거주 밀도가 높은 인도인 밀집 지역에서 비롯되었다며 철거대상이 되거나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주민과 정부가 함께 추진했으나 점차적으로 식민정부가 주도권을 가졌고 철거된 인도인 거주 지역은 영국을 위한 개발에 이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인도인들 사이에 반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도시에 대한 공식적인 내정간섭은 더욱 엄격해졌다. 도시 계획이 주민과 정부가 공유하는 일로 여겨지던 시대가 사라졌다. 대신에 정부는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도시 계획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인계받았다. 이러한 기회는 인도인 거주지의 많은 오두막을 제거하고 영국인을 위한 개발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지역들이 희생되었다. (중략) 지방 자치 단체의 인도 대표자들은 유럽인을 위한 마을 개발에 따른 불공정에 항의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적 시위는 인도인들 사이에서 반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켰다.”[20]

건축물을 통한 저항의 사례도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통치자들은 유럽풍 건축물을 통해 제국의 영광과 그들의 우월성을 표현했으며, 인도풍과 유럽풍이 융합된 건축 스타일을 통해 인도의 통치를 합리화하고자 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와중에 많은 인도인들은 유럽의 이상을 거부하고 토착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해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전개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봄베이의 잠세티지 타타(Jamsetji Tata)라고 하는 실업가가 앞에서 언급한 융합된 양식으로 타지마할

호텔(Taj Mahal Hotel)을 건설했는데, 이 건축물은 ‘인도 기업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국인이 운영하는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클럽과 호텔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설명한다. 영국인과 현지인간의 공간 분리 혹은 출입가능 공간의 제한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인들의 경제적 지위, 지배자의 우월성의 표현이며, 그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간 문화향후에 대한 독점의식의 발현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인 실업가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은 인도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방한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인도의 식민도시로 대표되는 뉴델리와 3대 항구도시인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에 대해 인도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서술관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들 식민도시들이 영국의 정책에 의해 형성·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인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전통적 도시의 쇠락과 신도시의 탄생’, ‘식민도시로서의 변화모습’, ‘식민도시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인의 저항’으로 주제를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뉴델리와 3대 항구都市는 태생적으로 출발점이 상이했다. 영국 식민정부의 정치적 의도 하에 무굴제국의 수도인 샤자하나바드는 파괴되었고 의도적 쇠락화를 통해 인도의 역사와 전통을 지워나갔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뉴델리를 건설함으로써 영국의 권위와 우월감을 드러냈다. 반면, 3대 항구都市는 영국의 경제활동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된 상업도시로 뉴델리 건설 시 자행되었던 기존 시설과 전통의 무차별적 파괴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델리와 3대 항구都市에 관한 평가와 의미부여는 다양한 양상을 띤다.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식민도시를 둘러싼 요소들, 가령 도시의 탄생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영국인과 현지인 간의 철저한 분리정책, 도시관리정책, 식민지배 기간 동안 축조된 건축물들에 관한

서술관점은 ‘인도인 정체성의 부정과 박탈, 배척, 멸시, 차별, 소외, 저항, 도전’이라는 축과 ‘기회의 부여, 수용, 흡수’와 같이 두 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

표 1. 식민도시에 관한 서술관점

서술관점	주요 서술내용
정체성 부정과 박탈	· 샤자하나바드의 파괴로 상징되는 무굴제국 영광의 망각 · 뉴델리로 상징되는 대영제국의 영광
배척, 멸시, 차별	· 화이트타운과 블랙타운으로 상징되는 영국인과 인도인 간의 철저한 공간적·인종적 분리 · 위생관념에 근거한 인도적 전통 멸시 · 뉴델리와 올드델리 도시운영에 대한 차별적 정책
소외	·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서민과 노동자의 주변인화 · 도시조성에 따른 현지인의 거주지 강제퇴거
도전, 저항	· 영국인 중심의 도시개발 반대 대중적 시위와 반식민주의 및 민족주의 감정의 확산 · 인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 축조를 통해 영국인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표현

기회의 부여	· 3대 항구都市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수혜자 등장(기존 직업군의 지형도 변화와 부의 획득의 기회 부여) · 서구식 교육기회 확대
수용, 흡수	· 문화의 향유방식의 변화(부분적 서구화) · 전통적 가치관의 문묘요소 인식과 사고체계의 변화

이와 같은 서술관점과 서술내용의 대표적 사례를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식민도시를 둘러싼 서술관점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데, 영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식민도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징, 그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들어가는 사회, 문화적 특징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며 다각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참고 문헌

- [1] 신민하, "1910년대 초반 영령 인도의 신수도 입지 선정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역사와 담론, 제83권, pp.166-167, 2017.
- [2] J. E. Brush, "The growth of the Presidency Towns," in R. G. Fox (ed.) *Urban India: Society, Space a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0.

[3] M. Dossal, "Colonial urban planning in Bombay, 1860-1880,"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3, No.1, 1989.

[4] M. Kosambi, "Commerce, conquest and the colonial city: the role of locational factors in the rise of Bomba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5, No.1, pp.32-37, 1985.

[5] A. D. King,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 Economy*, Routledge, 1990[앤소니 킹(이무용 옮김), *도시문화와 세계체제*, 시각과 언어, 1999].

[6] R. Home, *Of Planting and Planning*, Routledge, 2013.

[7] 이춘호, "도시 공간 구조를 통해 본 권력자의 속성연구-샤자하나바드와 뉴델리의 경우," *東岳美術史學*, 제11권 pp.89-104, 2010.

[8] 신민하, "1911년 영령(英領) 인도의 수도이전에 관한 연구-델리 수도 이전 결정의 역사적 배경과 식민정부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pp.23-59, 2016.

[9] E. R. Wolf,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10] B. S. A. Yeoh,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1]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 지성사*, 2010.

[12] 아르준 데브, "인도의 역사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엮음, *국가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과서 개선 방안 탐색: 한국과 독일,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pp.126-129, 1994.

[13] 판카지 모한, *인도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p.59, 2007.

[14] 澤田章廣, "歴史教科書にみるインドのセキュラリズム,"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文*, 第36号, pp.236-237, 2012.

[15] NCERT, *Our Pasts*, pp.64-75, 2006.

[16] 이향아, "식민지 도시계획, 제국 영국의 전 지구

적 유산," *도시연구*, 제2호, pp.163-173, 2009.

[17] V. Ordenberg, *The Making of Colonial Lucknow*, Princeton, 2013.

[18] 이옥순, "19세기 식민지 인도의 위생," *담론*, 제9권, 제1호, p.35-62, 2006.

[19] 이광수, "1947년 인도아대륙 분단과 '파키스탄 난민'의 정체성 변화 - 델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제81호, p.349, 2007.

[20] NCERT, *Themes in Indian History*, pp.316-343, 2007.

저 자 소 개

박 소 영(So-Young Park)

정희원



- 2016년 3월 : 일본 九州大學 국 제사회문화전공(비교사회문화 학 박사)
- 2003년 6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교과서 분석, 일본인의 한국인식

정 재 윤(Jae-Yun Jeong)

정희원



- 201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 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교과서 분석, 외국 교과서를 통한 한국인식